

전남 중부권

나주시 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선임 장기간 미뤄
체육계 갈등 속출 '부작용'

임명권자 임성훈 시장 갈팡질팡 분란 일어

나주시가 민선 5기에 들어 시 체육회 집행부를 장기간 선임하지 않아 지역 체육인들 사이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나주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민선5기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부터 나주시가 시 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인선을 추진했다.

이 사퇴의사를 표명하자 또다시 선임을 추진. 자전 타전으로 지금까지 여러 인사가 거론됐으나 임명권자인 임성훈 시장이 선뜻 낙점을 보류한 채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이는 임 시장이 정치적 코드 인사를 찾다 보니 그동안 상임부위원장의 물망에 오른 인사들을 저울질하다가 갈팡질팡 결정을 번복, 현재까지 답도 상태라는 것. 체육인 A(46·나주시 성북동)씨는 "지난해 임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B씨가 자전타전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무산됐다"며 "이후 최근에는 또 다른 C씨가 최종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임 시장측 인물로 분류돼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체육계 내부조차 상임부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계파가 형성되고 전임 상임 부회장이 임명했던 사무국장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권한을 행사, 체육계 내부가 이에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의 내용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부작용 등으로 향후 시 체육수준의 질적 저하 및 위상까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나주시는 여전히 시 체육회 집행부 인선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신중한 결정을 위한 조치였다"며 "지역 체육인들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을 조만간 상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산소방서 산악인명구조 훈련

광산소방서(서장 이재운)는 지난 18일 용진산 일대에서 산악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헬기 착륙장과 등산로 점검과 함께 산악 인명구조대비 상황별 대응훈련, 로프결착법과 산악사고 표준대응절차 숙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12월 화순서 열린다

화순군-배드민턴협회 협약

오는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화순에서 열린다. 화순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한 배드민턴협회와 '2011 화순·빅터 코리아 그랑프리골드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대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 참가자격 대회의 하나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대회로서 25개국 500여명의 외국인이 화순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화순군의 배드민턴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벤트 행사로 12월 10일~11일 이틀간 이용대 선수를 비롯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팬 사인회가 마련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참가선수단이 10일동안 속속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료 재배 파종 연시회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공동으로 장성군 진원면에서 조사료 재배 및 파종 연시회를 가졌다. 축산농가 생산비 가운데 사료비가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공동으로 장성군 진원면에서 조사료 재배 및 파종 연시회를 가졌다. 축산농가 생산비 가운데 사료비가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담양 3개권역 사업 국비 123억7000만원 확보

- 메타세쿼이아 테마공원
- 금성산성 종합 정비
- 월산권역 경관 정비

담양군이 농림식품수산부 주관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3개 권역 사업이 선정돼 총 123억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담양군이 농림식품수산부 주관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3개 권역 사업이 선정돼 총 123억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간 49억원의 예산을 투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40억9000만원과 군비를 포함 총 81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2015년 까지 담양을 확대하여 조성되는 '메타세쿼이아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에는 목공예체험장과 특산물 판매장, 숲속 공연장, 숲 체험장 등이 들어서 담양을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금성산성 권역'은 2015년까지 국비 33억8000만원을 포함 총 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나무 체험장을 비롯 달기캠, 전통메주 체험장과 황토한옥 체험장 등 체험시설을 갖춘 금성산성과 대나무생태공원을 연계한 도·농교류 활동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16년까지 월산면 화방리에 위치한 홍수조절지 인근으로 지역활성화 센터와 한우 명품관, 산채나물 생산단지 등 지식소득 증대시설이 조성되고, 미니 축원과 시루산 등산로 정비 등 경관정비를 추진하는 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49억원을 비롯 총 사업비 7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3개 사업이 동시에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축원권역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대나무 생태공원 등 녹색 관광자원을 비롯해 친환경농업의 선도지역으로서 도·농 교류허브로서의 매력이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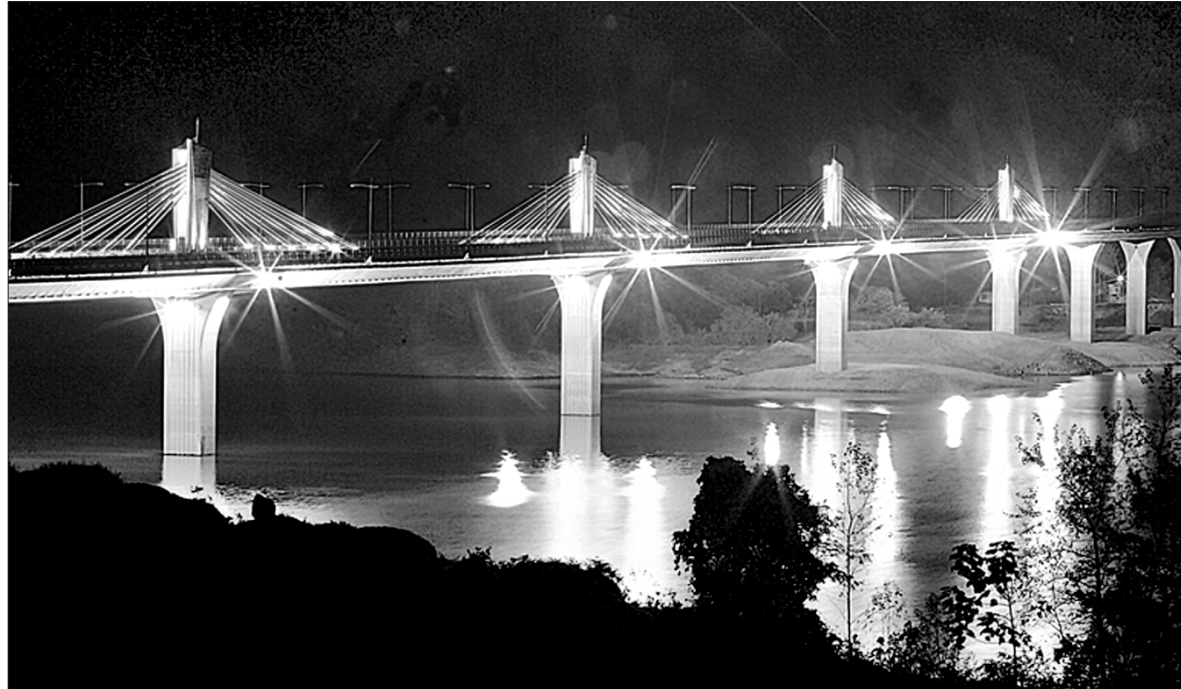
전 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입주 줄이어

호주·인도네시아 투자 협약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될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입주 희망하는 국외 기업과 국내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익산시는 19일 식품 중개업을 하는 호주의 'JD's Seafood Export Contractors',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시장에 대한 조사와 투자 활동을 대행하는 인도네시아의 'GMP Commodities'와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호주업체는 EU 인증업체 가운데 상위에서 들 정도의 우수한 업체로, 최첨단 수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IT기반 융·복합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날 익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조성될 식품클러스터내 통신망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입주기업의 식품 제조와 생산 과정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우수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익산시가 투자와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는 14곳으로 늘었다. 이한수 시장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과 해외 식품기업과의 투자협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계속 추진한다면 내년부터는 투자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익산시는 오는 2016년 개完工될 식품 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140여 곳과 대학·연구소 10여 곳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습드러낸 임실 옥정호 운암대교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 건설된 길이 910m의 운암대교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2004년 8월착공해 연말 개통 예정인 순창~운암간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설치된 운암대교는 다섯 개의 주탑과 돛단배의 돛을 상징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 건설된 길이 910m의 운암대교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2004년 8월착공해 연말 개통 예정인 순창~운암간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설치된 운암대교는 다섯 개의 주탑과 돛단배의 돛을 상징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30년간 부안군 金庫 독점한 농협

"지역 기여도 낮다" 불만 목소리

최근 부안군의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려다 물의를 빚은(광주일보 10월 6일 11면)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의 지역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부안군 금고에 독점한 농협중앙회 부안군 재정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한해에만 10억여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농협중앙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지난 3년간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부안군에 지급한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안군의 평균 잔액이 1000억원을 감안할 때 농협이 대출로 벌어들이 수 있

는 돈은 현 금리(6~12%)로 계산해도 한해 최고 10억여원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郡) 금고선정은 선정위원 총 9명(부안군의원 2명 포함)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농협은 그동안 협력사업비가 나오기 전에도 단위농협과 연계해 농민에게 사임비(규산질 비료구입 등)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농협중앙회 부안군 지부와 3년간 군(郡) 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군(郡) 금고 재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있다.

군산~제주 '위그선' 내년 3월 취항

시속 250km '바다위 KTX'

세계 최초 50인승 진수식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50인승 위그선(Wig Ship·수면비행선박)이 이르면 내년 3월 취항할 전망이다. ㈜오션익스프레스 강남욱 사장은 지난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최초로 50인승급 상용 위그선을 최근 진수했다"면서 "시합 운행과 접안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경 군산~제주를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션익스프레스는 지난 2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현재 10여 명의 조종사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우선 위그선 1척을 군산



비용항과 제주도 애월항 노선(거리 320km)에 투입해 하루 3~4차례 운항할 예정이다. 이 노선의 운항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 요금은 8만9000원(잠정)이다. 한편 '바다의 KTX'로 불리는 위그선은 물 위를 1~5m 높이에서 시속 180~250km로 순항하는 해상고속수단으로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

료 소모량도 고속선과 항공기보다 적어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장애물 감시 적외선 카메라와 고성능 레이더 등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전방 10km 이상의 거리에서 물체를 파악하고 회피 또는 감속 운행이 가능해 비행기나 다른 선박보다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브리핑

정읍에 전국 최초 할머니 복지관 개관

전국 최초로 할머니 전용 복지관이 정읍에 문을 열었다. 정읍시는 옛 연지청사 후관 1층에 150㎡ 규모로 할머니 복지관을 마련, 지난 18일 개관식을 가졌다. 복지관은 노래 반주기와 정수기, 수강용 탁자와 의자 등 교육·여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췄다. 시는 올 연말까지 노래와

건강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이달 초 구성된 할머니복지관 운영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이다. 정읍시는 "노인 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원시 24일부터 CCTV 이용 불법 주정차 단속

남원시는 24일부터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가 많은 남로(삼다리 4가~시창 4가)를 비롯해 ▲광한북로(금동시장~백바라기앞길 앞) ▲광한서로(백토랑~예술방공에서 앞) ▲향단

로(기장바다장어~일신회관 앞) 등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게 된다. 시는 교통질서 모범차량에 대해서는 300대를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내년 부터 지급한다.

김제경찰 고교생 대상 사이버 범죄예방교육

김제경찰서(서장 조응식)는 지난 18일 김제서고등학교 학생 100여명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응식 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인터넷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주변 순찰강화와 학교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시멘트 순창 방적공장 12월 준공

한국시멘트(주) 순창 방적공장이 12월 준공된다. 한국시멘트(주)는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정에 박차를 가한 결과 80%의 건물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순창 방적공장은 부

지 3만4107㎡, 건물 1만9061㎡로 올해까지 563여원을 투자해 118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향후 풍산제2농공단지가 완공되는 2013년에 2만여평을 추가 분양받아 방적사업을 증설할 계획이다.